

2025 문화계 결산 <1> 미술

비엔날레·아트페어 잇따라... 전통·현대 어우러진 ‘미술의 해’

올해 지역문화계는 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한 행사가 펼쳐졌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문화예술계 이모저모를 미술, 공연, 문학 3회에 걸쳐 결산한다.

올해 미술계는 하늘과 바다를 수목으로 물들였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비롯해 ‘포용’의 의미를 환기했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호남 최대의 미술 시장인 광주아트페어 등 굵직한 행사도 잇따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진 수목의 향연으로, 전남의 수목미학이 세계 미술 담론 속으로 본격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국내외 20개국 83명의 작가(팀)가 참여해, 전통 수목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목포시·진도군·해남군 등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비엔날레는 약 44만 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 남도 수목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에 새롭게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선보인 목포

문명의 이웃들 ‘전남수목비엔날레’ 포용디자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호남 최대 미술시장 ‘광주아트페어’ ‘BLACK&BLACK’ 등 국제전시도

실내체육관은 가벽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현대적인 전시공간으로 변신했다. 유압장치와 먹물을 이용해 노동자의 형상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폴란드 작가 프세미스와프 야시엘스키의 ‘remember(me)’, 레고로 ‘몽유도원도’를 재현한 황인기의 ‘오래된 바람’ 등 매체적 실험을 통해 수목의 가능성을 확장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았다.

전통 수목화뿐 아니라 설치미술·미디어아트·영상 등 동서양의 다양한 표현양식이 어우러져 ‘수목의 새로운 물결’을 제시했다.

(재)광주비엔날레가 12년 만에 다시 주관했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서로 다른 ‘나’와 ‘너’를 이어주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렸다.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 네 개의 키워드로 보는 포용디자인은 디자인이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러플의 ‘인클루시브 패션-모두를 위한 옷에 대한 제안’ (2025)은 의복을 입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시작했다. 좁은 목선을 넓히는 사이드 지퍼, 물건이 빠지지 않는 깊은 주머니, 와이드 밴딩 등 휠체어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옷을 입을 때 겪는 불편함을 세심하게 개선했다.



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렸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아트광주는 ‘아시아 중심 아트페어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미술 관계자와 관객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본 행사는 총 11개국 94개 갤러리가 105개 전시 부스에서 관객을 맞았다.

출품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회화, 판화, 사진, 공예, 조각, 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보는 재미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불경기를 반영하듯 고가 작품 거래는 주춤했지만 생애 첫 작품 구매객 및 중·저가 작품 거래가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여수 출신의 천재화가 손상기(1949~1988) 특별전 ‘거장의 숨결’은 관객들에게 한국 근·현대미술의 원류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도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였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기념전 일환으로 ‘장미

토끼 소금: 살아 있는 제의’는 예고 없이 닥쳐온 재난과 죽음을 극복하고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제의적 예술의 가능성을 주제로 내세워 관객들과 소통했다.

사진 몽타주와 콜라주를 매개로 현대 산업사회의 폐해를 날카롭게 묘사했던 신학철 작가의 60년 회고전도 눈길을 끌었다. 실험미술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신 작가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광주에서 60년 회고전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예술을 매개로 그림을 그리고 동참했다는 입장에서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올해 수목비엔날레 4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전시 ‘BLACK&BLACK’전을 준비했다. 국내외의 총 20명 작가의 회화와 도자기, 영상 설치 등 작품 70여 점을 토대로 동아시아 수목 남종화와 50년대 서구 블랙화화를 현대미술의 시

각에서 조망했다. 서구 거장 피에르 솔라주, 한스 아르통, 장 드고텍스, 로버트 마더렐, 자오우키 외에도 한국 현대미술을 이끈 이우환, 이응노, 이강소의 작품이 관객을 맞았다.

국제전시 ‘Occupy: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는 오늘의 세계적 상황, 국내적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의 가치, 사회와의 관계성을 사유하게 했다.

추석을 즈음해 개막했던 기획전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마나 모아나, 내년 1월 4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 개관한 프랑스 파리의 케브랑라-지크시르크 박물관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수집한 유물이 관객을 맞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으로 맞는 새해의 첫 울림

ACC 신년음악회 1월17일 예술극장

새해의 문을 여는 국악 선율이 무대 위에서 힘 있게 울려 퍼진다. 전통이 지닌 깊은 결 위에 오늘의 감각을 덧입힌 음악이 한 해의 출발선에 서는 관객에게 희망찬 울림을 전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내년 1월 17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6 ACC 신년음악회’를 연다. ACC재단 설립 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무대는 국내 대표 국립 국악 예술단체들이 함께하는 신년 공연으로, 전통 국악의 정수와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지는 대형 무대가 될 전망이다.

신년음악회에는 국립민속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한다. 각기 다른 지역과 전통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국립 국악 기관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로, 국악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연흥무’ 한 장면.

〈ACC재단 제공〉

우선 정통 국악 무용과 기악, 관현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연고무와 연흥무를 통해 민속춤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과 흥을 선보이며, 국립남도국악원은 대취타와 오곡타령으로 남도 국악의 힘찬 기운과 장단의 매력을 전한다. 궁중과 민속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통해 한국 전통예술이 지닌 깊이와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 후반부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 위에 대중에게 친숙한 협연자들이 더해진다. 소리꾼 장사익을 비롯해 김준수, 추다혜가 무대에 올라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노래를 들려준다.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지닌 이들의 협연은 국악이 지닌 확장성과 오늘의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 김해연이 사회를 맡아 작품의 배경과 음악적 맥락을 설명하며 공연의 이해를 돕는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국립 국악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예술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오늘의 감각을 함께 담은 무대를 준비했다”며 “새해를 맞는 관객들에게 국악이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석 5만 원·S석 3만 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미술관 전시실 내부 모습.

〈이강하미술관 제공〉

내년 1월 25일까지 미술관 보물창고 열린다

이강하미술관 ‘수장고’ 전

미술관의 수장고는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다. 미술관의 보물창고로 이중벽은 물론 단열, 방화, 항온항습, 소화설비 기능이 설치돼 있다.

수장고 보관 작품과 자료들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 등을 가능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유산이다. 학예연구사는 소장 자료와 작품들을 보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미술관의 수장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강하미술관은 ‘2025 LAM 열린 수장고’ 전시(내년 1월 25일까지)를 마련했다. 올해 마지막 전시회이자, 첫 아카이브전시 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전시장을 ‘예술가의 작업실’ 또는 ‘미술관의 수장고’를 옮겨 둔 것처럼 대표 작품과 자료들로 구성했다.

전시실은 수장고의 보관 작품과 이강하 작가의 삶을 아카이브 자료와 연계한 작품이 전시로 구성됐다. 이강하 작가의 1970년~2007년 대표 작품과 자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은 작가의 탐구하는 데서 나아가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작품과 작가에 투영된 서사 외에도 미술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이지 않는 기능까지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브 전시는 이강하 작가 작고 이후부터 미술관 개관 운영까지 보존 연구 해온 작품과 소장 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유형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소장품이 일상 속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0년’ 보성 영광정씨 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 자리한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은 조선시대 정순일(1609년~?)이 터를 잡은 이래 400여 년간 이어져 온 가옥이다.

‘거북정’이라 불린 이 고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정해룡 선생이 민족주의 운동과 교육사업을 펼치던 거점이기도 했다. 한 가문의 생활 터전을 넘어 시대의 기억을 품고 있는 역사적 장소다.

국가유산청은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

다. 이번 지정은 고택이 지닌 장기간의 역사성과 더불어 풍수경관, 생활사, 근현대사의 흔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영광정씨 고택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과 근대 민족운동, 해방 이후의 격동기까지를 거치며 지역 사회의 기억을 품어왔다. 한 가문의 생활공간을 넘어 시대의 변화와 흔적이 켜켜이 스며든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 2026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진행

우당탕탕 인턴십·평화이야기 보관소

미래 진로를 모색하고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마련한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은보당’ (내년 4~7월과 9~12월 매주 화요일),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내년 5월)가 그것.

‘우당탕탕 인턴십’은 몰입형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동료 인턴들과 함께 회사 생활을 경험한다. 전시 기획안 작성, 공연 사업 프로그램북을 제작, 아카이브 구축 계획안을 세우는 등 팀 미션을 수행한다. 큐레이터, 전시 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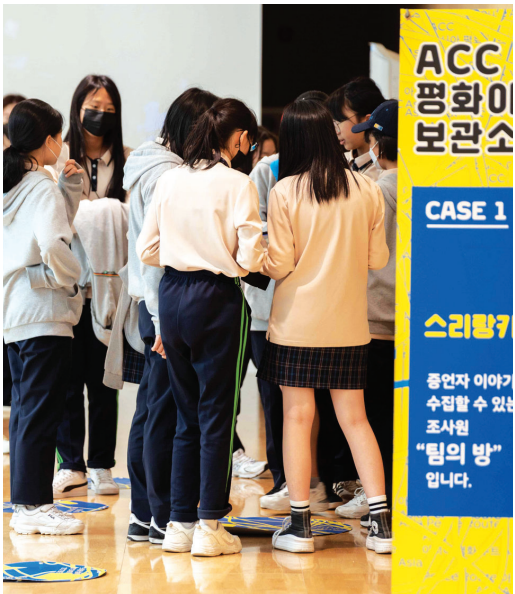
이너, 공연 연출가, 아키비스트, 홍보마케터 등 문화예술 직군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평화이야기보관소’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게임 형식으로 풀어낸 디지털 스토리텔링 교육이다. 이야기 보관소에 숨겨진 단어를 수집하고 토론을 매개로 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100~150명 내외의 신청 가능하며 교육부 진로 체험 누리집 공모를 통해 가능하다. 전액 무료이며 ACC 누리집 참조.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 업무 등을 이해하고 문화 관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마련했다”며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전에 진행됐던 ‘평화이야기보관소’ 프로그램 장면. 〈ACC 제공〉